



“교섭창구단일화 폐기하라”

1일 청와대 앞 기자회견·결의대회···악법 교섭창구단일화 폐기 촉구

금속노조가 1일 오후 서울 종로구 청와대 사랑채 앞에서 결의대회를 열고 복수노조 교섭창구단일화제도 폐기를 촉구했다. 결의대회에는 1천여 명의 금속노동자들이 집결했다. 금속노조는 15년 전 복수노조법과 함께 시행된 교섭창구단일화 제도가 노동자들의 노조할 권리를 막고 있다고 강력히 비판했다.

박상만 금속노조 위원장은 “지금도 금속노조에는 150곳이 넘는 복수노조 사업장이 있고, 100곳이 넘는 현장은 교섭권조차 없이 민주노조의 깃발 하나를 지키며 버티고 있다”며 “가짜 어용노조의 시간은 결코 영원하지 않을 것”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박상만 위원장은 “만도지부 50여 명의 조합원들이 10년이 넘는 긴 세월 동안 민주노조의 깃발을 놓지 않고 투쟁한 결과 1천 5백 명이 넘는 기업노조 조합원들이 금속노조를 선택했다”며 “이것이 민주노조의 힘”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힘들어도 포기하자 말자. 교섭창구단일화 악법을 폐기하는 그날까지 함께 투쟁하자”고 목소리를 높였다.

지난 4월 정리해고를 당한 전일영 노조 대전충북지부 APTIV충주지회장은 “정부는 교섭창구단일화제도가 사용자의 무기이자 노조

파괴 전술로 변질된 것을 다 알면서도 15년 동안 방관해 왔다”며 “교섭창구단일화제도가 노동 3권을 짓밟고 있는 한, 길거리로 쫓겨나는 해고자는 끊임없이 생겨날 것”이라며 제도 폐기를 강력히 요구했다.

윤상한 노조 광주전남지부 대양관지지회장은 “행정적·사법적 처벌에도 불구하고 사측은 여전히 ‘부당노동행위 종합선물세트’를 진행 중이다”며 “정부는 복수노조제도 적용에 대한 전면적인 실태조사와 공개적인 노정 협의체를 구성하라”고 정부에 책임있는 역할을 촉구했다.

권수정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투쟁사에서 “20년을 투쟁해 쟁취한 원청교섭에 교섭창구단일화를 적용하라는 시행령에 분노한다”며 교섭창구단일화제도가 원청교섭을 지연시키고 봉쇄하는 데 활용되고 있음을 지적했다.

금속노조는 이날 오전 청와대 사랑채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청와대에 ‘복수노조 교섭창구단일화제도 폐기 요구안’을 전달했다. 집회를 마친 참가자들은 서울고용노동청으로 행진하여 노동부에 복수노조 교섭창구단일화 폐기를 요구했다.